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32장(만유의 주재)..... 다 같이
※ 교독문 22(시편 37편).....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356장(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이경훈전도사 2부 강항구장로
응답송 찬양대
이달의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이
*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교회되게 하소서. * 청소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민수기 14:4-10 류종란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자신을 정탐하라 > 최세열목사
기도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484장(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같이
봉헌 (5 구역).....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최세열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일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김혜경권사	본문 / 딤후 1:7-14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디도서3:8-15	(마태복음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금요일기도회	
바울 목회자 7스피릿/제2과정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목회자	주기도문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8월15일까지 쉽니다. 개인기도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다음주	1부	원혜경집사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기도	2부	박홍만장로
	헌금위원	8월 최경선 주종임 안해숙 김연학	다음주	1부	인도자
		9월 공영순 신혜영 김근중 이종열	성경봉독	2부	방옥남권사
식당봉사	금주	사라희	다음주	마리아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헌신찬양	금주	5 구역	다음주	6 구역	강진숙권사

자신을 정탐하라 / 민수기 14:4-10

교회의 여름수련회와 캠프의 목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탐하고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보고대회를 열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자로 나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백성들 역시도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아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보고대회가 절망과 탄식과 원망 분노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와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40년간 늦추어졌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복 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정탐해 보아야 합니다.

1.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있는지 정탐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은 처음부터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미리 살피려 간 것인데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비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품은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면 나의 자아, 곧 나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병든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발과 같아서 조금만 방심해도 잡풀이 우거져 버립니다.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고 큰일을 맡기실 때마다 그들이 품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셨습니다.(수1:9, 막9:23)

2. 건강한 자아와 자신감이 있는지 자신을 정탐해 보아야 합니다.

‘자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철학), 개인의 의식과 관념(심리학)으로 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뜻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식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나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아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과 희망과 소망을 외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며,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지녔다”(벧전2: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3.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애굽인지 하나님이신지 정탐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애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을 미화하고 그들이 겪었던 극심한 노동과 고통, 생명의 자유를 상실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행복한 애굽생활이었던

성령강림후 아홉번째주일(8월 3일)

제 32 과 고요하신 성령(요한복음 16장 5-15절)

(함께 읽을 말씀 : 사도행전2장1-4절, 요엘2장 28-29절)

말씀묵상

1. 신약성서에는 두 가지 성격이 다른 성령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은 뜨거운 불길과도 같습니다. 방언을 터뜨리고, 은사를 주고, 술 취한 것처럼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오순절의 영은 '뜨거운 영'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6장에는 보혜사 성령, 곧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나옵니다. 잘못을 깨우치고, 진리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영은 '고요한 영'입니다. 잔잔한 물과 같습니다.

2. 뜨거운 영과 고요한 영은 서로 다른 두 영이 아닙니다. 한 성령의 두 면입니다. 초대교회 이래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두 가지 면이 조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뜨거운 영과 고요한 영을 함께 체험해야 합니다. 한쪽의 성령만 체험하면 신앙이 그릇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만 강조하면, 자칫 성령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영이 아니라 신비, 황홀, 입신과 같은 것들을 주는 영으로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요한 성령 체험만 강조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 역사에서 떼어 내서, 우리를 마음의 세계 쪽으로만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두 성령 체험을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도 삶도 건강해집니다. 뜨거운 성령과 그 은사는 고요한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합니다. 반대로 고요한 성령은 뜨거운 성령과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떠난 수도원이 아니라 이 세상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합니다.

3.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한국교회는 고요한 성령운동을 펼쳐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고요한 성령운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기독교는 뜨거운 성령운동을 주로 펼쳐 왔습니다.

요즈음은 가톨릭교회도 개신교 못지않게 뜨거운 성령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회는 우리 겨레에게 고요한 정신을 일깨우고 격려해서 뜨겁고 매우 급한 천성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성령운동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령운동 안에는 오순절의 뜨거운 영과 파라클레토스 고요한 영이 다 있지만, 우리는 뜨거운 성령체험만을 주로 강조해 온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에게 그 반대의 것, 곧 고요한 성령체험을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고요한 성령을 회복하여 뜨거운 영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겨레가 근대화를 거치며 잃어버린 아름다운 것들과 성서적인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애굽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과 죄의 종노릇하며, 절망과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흥해나 여러고성, 요단강, 거인족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위대한 믿음의 삶과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긍정의 믿음, 건강한 자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말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안수집사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오후1시).
2. 청소년부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노회가 주관하는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담당자 : 박세일집사, 이경훈전도사)
(장소 : 하네테마파크 /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3. 해든솔 선교활동이 8월 9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8시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심 일 조 : 서영자 정숙자 윤종원 한상호 차소라 박기환 한옥자 김태라 이완수 김봉순 박세일 안복선 김애경 양희임 신공님 강항구 류종란 이용훈 박치국 이영란 김춘자 김선자 나금옥 조종순 김기수 신혜영 양석임 안진영 김근중 주종임 김해경 강국환 김용선 이문순
- 감사헌금 : 이문순 김옥길 여순애 김병국 김기희 양석임 박광섭 박치국 이영란 이완수 김봉순 김지환 김동현 김병진 (생일)한은미 (일천번제)김동현 (선교) 이영란
- 건축헌금 : 강항구 류종란 이종봉 이춘호 이윤화 이현화 김해경 김옥길 여순애 박치국 이영란 양석임 박기환 한옥자 윤종원 김근중 주종임 노순영 베드로회 마르다회
- 비전씨앗 : 배영인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긍정의 힘

1864년 영국에서는 1마일(약 1.6Km)을 4분 5초에 뚫던 것이 당시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단축해 보려고 도전했지만 4분 1초를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1마일을 4분 이내에 뚫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1945년 어느 외과 의사가 발표하기를 "1마일을 4분 이내로 뚫 수 있도록 인간은 심장이 만들어져 있고 육체가 만들어져 있다"고 의학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듣고 난 다음 2년 동안에 무려 130명이나 1마일을 4분 이내로 뛰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100년이 지나도 1마일을 4분대에 깨지 못했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자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분 이내로 뛰어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과 마음과 꿈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환경과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한다면 못합니다.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하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흰 눈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니 겨울이 좋다."

봄이 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여름, 가을에 대해서도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은 또 그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다. 하지만 가을도 좋다. 가을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니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허무해져서 싫다. 봄이 되면 꽃샘바람이 불고 노곤해서 싫다."하고 "싫다", "싫다" 소리를 연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겨울이면 "아, 어서 여름이 되었으면" 하고, 여름이면 "아, 어서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어디에 갖다놓아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합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해주심에 대하여,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정확시켜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좋고, 다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31

2014.8.3.

8월의 기도 1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계절의 풍성한 섭리로써
온 세상을 돌보시니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섭리를 따라
들에 핀 꽃들이 꽃을 피우고,
공중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듯
저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강건한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돌보아주소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을 맺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주님,
논밭처럼 갈라진 농부의 마음에 단비가 되고,
정오의 열기에 지친 이들을 식혀주는,
주님의 산 복음이 바로 저희에게 하소서.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뚫고 샘솟는 샘물처럼
경쟁과 다툼의 불길기 넘실거리는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단물에게 하소서.

메마른 세상의 단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의 교회 행사

1. 평신도 참여예배 - 8월 17일 / 바나바회
2. 해든솔선교활동 - 8월 9일(토) 오전 8:30
3. 임마누엘찬양대 헌신예배 - 8월 31일
4. 청소년부수련회 - 8월 4일-6일 / 하네테마파크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